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모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45호 현대불교
2007년 9월 12일(음력 8월 2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영원한 보배는 바로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

이곳 제주도에 오늘 도착하고 보니까 비가 오더니 지금은 날이 이렇게 활짝 개였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마음도 활짝 개인 한마음으로 한자리를 하고 앉았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의해 사람이 자유고에 떨어지는가 하면 승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한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로 구렁이에 빠질 수도 있고 구렁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하나가 귀중하며 묘비하고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바로 마음의 시자인 것입니다. 위로는 일체제불, 일체 조상을 자기 근본에 한마음으로 귀합을 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해서 섬기고,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를 돌보면서, 또 몸뚱이 속에 있는 수억 마리의 중생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바깥의 내 식구들을 돌보면서 내 모든 동포와 민족을 돌보아야 이 한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것입니다.

내가 제주도에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병자들이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식도 노릇을 할 때는 식모가 되고 또 하인 노릇을 할 때는 하인이 되고, 의사 노릇 할 때는 의사가 되고 또 사장 노릇 할 때는 사장이 되고 하듯이 이 세상에는 고정관념도 없고, 보는 거 듣는 거 가고 오는 거 먹는 거 또는 마음먹는 거까지도 고정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의 수없이 바뀌는 마음에 의해서 행이 주어지니 얼마나 천차만별로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을 볼 때마다 바로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내가 괴로운 것처럼 내가 울부짖어집니다. 그리고로 여기 와서는 설법을 할 때도 여러분의 차원에 맞춰서 설법을 하게 되니까 이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님은 병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말이 나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 몸을 하나 잘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상구보리(上求菩提) 화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 뜻을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요? 두 가지 여건이 있는데 내부와 외부의 문제입니다. 상구보리 화화중생이라 하면, 나부터 알아서 나를 이끌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어만이 남을 이끌어 줄 수도 있고 일체제불과 같이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부처님을 나와 더불어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 광대무변한 능력이 생김으로써 공덕법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알면 계율은 저절로 지켜지고 지혜도 늘어나고 물리도 터지는 거죠. 그럼 우리 스스로의 마음, 그 한자리에서 스스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빛보다 더 빠르게 오고 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일체 만법을 이렇게 수레바퀴 굴러듯이 무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 가지의 꽃이 피고 만 가지 향내가 나고 만 가지 열매가 맺혀서 무르익어 만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신비하고도 도도한 이것이 바로 공덕법행입니다.

아까도 한 분 한 분 만났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배는 바로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 해서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주인공' 하면 그 안에 일체 만법이 다 들어 있으니, 삼천대천세계의 우주의 섭류까지도 그 속에 다 들어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묘법입니까? 불가사의한 뜻이 거기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하고 부를 때에 말로 부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만 올리라는 게 아니라 '주인공! 당신은 수만 겁, 수억 겁을 거쳐 오면서 나를 형성시키고 모습을 바꿔 가면서 화해서 나를 여기 까지 끌고 온 장본인이자 나의 뿌리이다. 삼천대천

세계가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公用)으로서 공체(供體)로서 돌아가는 이치를 합해서 바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일컫는 것이다. 당신이 형성시켰으니 안되는 것도 바로 당신이 할 수밖에 없다.' 하고 뜻으로서 받아들일 때에야 그 진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거기가 다 일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일임시킬 수 있고요. 안되는 것은 '그렇게 안되는 것도 당신만이 되게 할 수 있어.' 하고 믿고 일임시킬 수 있는 것은 진정코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서도 '주인공! 나 좀 낮게 해 줘.' 이렇다면 벌써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가도 돌아서 가는 격이 되죠.

공을 찾는데 바로 들어가서 자기 가서 딱 맞아야 그 공의 힘을 100% 쓸 수가 있는 거지, 공을 찾는 데 돌아서 자기 가서 맞다면 공의 힘을 전부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돌로 보지 마시고 직속으로 '네가 형성시켰고 내가 수억 겁을 끌고 다녔고 현재에도 끌고 다니니까 바로 네가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너박에는 못한다.' 하고 믿고 맡기되 맡긴 후에는 거론하지 말라 이거예요. 방향하지 말고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것도 바로 네가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거지 몸뚱이가 너를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몸뚱이를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 뿌리는 바로 에너지와 같고 심봉과 같고 촉과 같아서, 비행기 프로펠러가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천지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인간이 일체 만법을 이렇게 운영하고 행을 하는 것도 마음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 이 오묘한 마음의 근본을 우습게 생각하고 '부처님이나 큰스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마는 우리 같은 중생들이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과 더불어 똑같이, 이 형상도 부처님하고 다 똑같이 나게 했습니다. 마음 하나가 물리가 터지지 못하고 자기 날기 이전을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중생이라는 말을 듣게끔 돼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병들도 바로 주인공에 그렇게 믿고 맡길 수만 있다면 나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믿고 나간다면 어떤 것이든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이거는... 그건 장담합니다. 자기가 실험을 안 해 보고 자기가 체험을 안 해 보고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할, 공부할 건 없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도리를 다 익히지 못해서 지금 병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도리를 알리고 공부할 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 기울어 지지 말고 한 푼이든 두 푼이든 자기 형편대로 부처님 앞에 놓으면서 '일체제불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바로 내 마음이요, 당신의 형상적인 몸이 바로 내 몸이니 어찌 돌이겠습니까? 주인공! 당신 밖에 해결 못하시오.' 하고 정성을 들이면, 여러분이 나으니 좋고 그 돈을 모아서 또 여러분의 여래의 집을 만든다면 그건 더욱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건 어떠한 개인의 집이 아닙니다. 여래의 집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집이자 여러분의 집이자 일체 만물만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묘한 마음의 도리를 잘 발견하고... 본래 없는 것을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모르니까 발견하라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끌고 다니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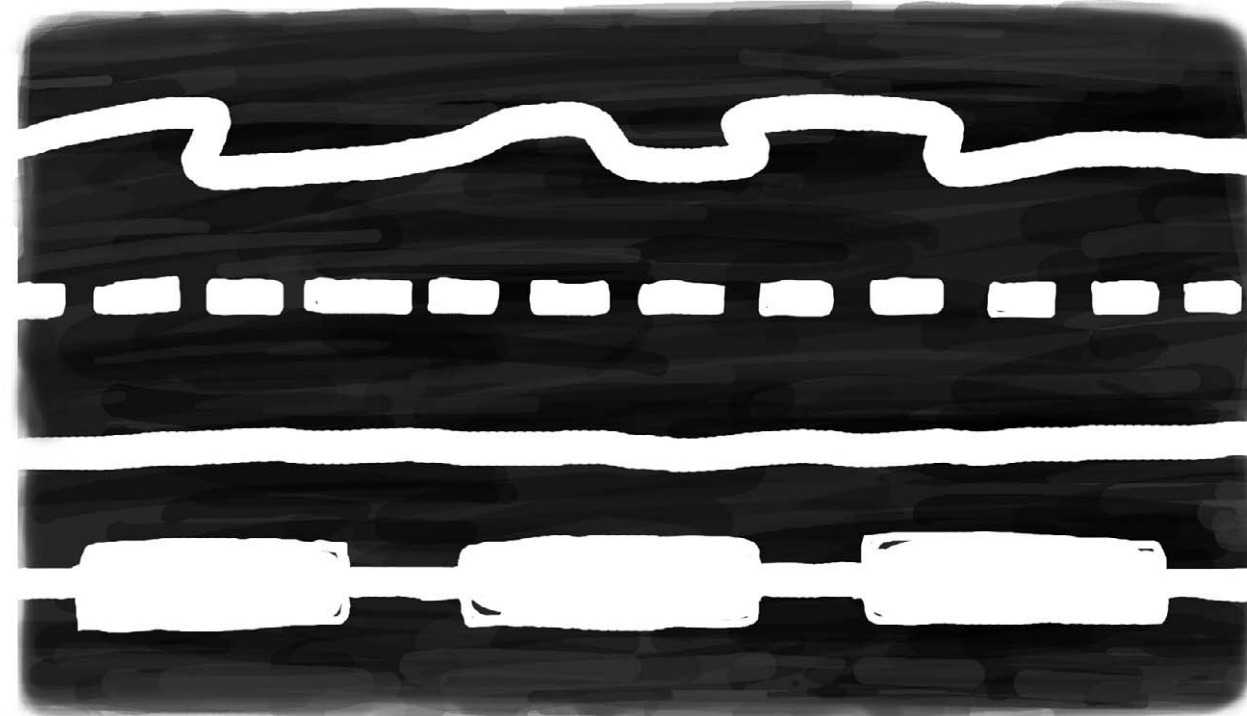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교의식(범음·범패) 단기 속성 수련생 모집 (제9기 교육)

본 교육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하게 집전 할 수 있도록 집중(단기속성 7일간) 교육을 받을 제 9기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제방에서 수행과 기도 정진으로 교화와 포교에 전력을 하시는 스님들께께서는 범 종단 차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제 9차 범음 범패 의식 교육에 수희 동참 하시는 시절 인연을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 교육 일시 : 불기 2551년 10월 1일(음 8월 21일) 월요일 - 10월 7일(음 8월 27일) 일요일
- 교육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미륵굴 무각사
- 제출 서류 : 수강신청서(본 회에서 배부) / 주민등록 초본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동참비 : 일십만원(교육교재 지급/숙식 등 제반편의제공)
- 접수 기간 : 불기 2551년 10월 1일 까지(교육 입소 당일 접수가능)
- 접 수 : 011-604-8902(회장), 011-613-6497(총무) 011-604-9584(교무), 010-3639-2946(재무)
- 생활 습의는 대중 처소와 같이 합니다.(가사, 장삼, 목탁, 필기도구 자참요망)

■ 교육과목

안채비	(1) 의식편(상단, 중단, 하단 의식 불공 등) (2) 제의식편(시련, 대령, 관육, 시식 등)
겉채비	(1) 사물다루는법 / (2) 민바라 / (3) 천수바라 / (4) 다계(나비춤)

- * 실제 법회에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방법을 이론 / 실기 / 현장실습 교육 방법으로 초심자라도 집전을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 수료증 수여 : 준회원 자격부여, 우수한 스님은 선별 심사후 정회원 입회자격 및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사단법인 전통불교 영산회 대중스님 일동 합장